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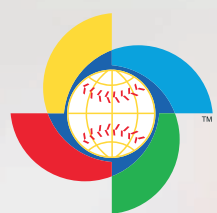
“WBC는 투수교체 타이밍 싸움”

괌 캠프 떠난 선동열 투수코치의 마운드 구상



“라운드별 투구수 제한·휴식 규정 변수
중간-마무리까지 투수 교체 타이밍 중요”
“소속팀 전횡처럼” 체력·정신무장 강조

선동열 WBC 국가대표팀 투수코치가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괌으로 미니캠프를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WBC는 힘든 대회”라며 우려하고는 “투수교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DB



제4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한국대표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마운드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의 합류로 한숨 돌렸지만, 팔꿈치 수술을 받은 김광현(SK)이 하차했다. 양현종(KIA)과 차우찬(LG), 장원준(두산), 이대은(경찰야구단) 등의 선발요원이 버티고 있지만, 규정이 다소 복잡한 대회 특성상 선발투수만으로 승부를 걸기 어렵다. 31일 캠프지인 괌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선동열(54) 대표팀 투수코치가 ‘투수교체 타이밍’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규정 복잡한 WBC, 투수교체 타이밍이 관건
이번 대회 28명의 최종엔트리 가운데 투수는 13명. 오승환과 양현종, 차우찬, 장원준, 이대은을 비롯해 이현승(두산), 원종현(NC), 임정우(LG), 임창용(KIA), 박희수(SK), 우규민, 심창민(이상 삼성), 장시환(KT)이 그들이다. 국제대회 경험 등에 비춰볼 때 과거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역대 최약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선 코치는 “이번 WBC는 매우 힘든 대회”라면서도 “선발 투수의 비중 자체가 다른 국제대회와 견줘 크지 않다. 중간과 마무리까지 연결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회 요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3년 제3회 대회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투수가

한 경기에서 던질 수 있는 공은 1라운드 65개, 2라운드 80개, 준결승과 결승 95개로 제한됐다. 그뿐만 아니라 50개 이상 투구 시 4일, 30개 이상 49개 이하 투구 시 1일, 2일 연속투구 시 1일 휴식 등의 규정도 있었다. 이 같은 규정은 마운드를 운용하는 데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3월6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네덜란드(7일)~대만(9일)과 차례로 맞붙는다. 만만치 않은 여정이다. 선 코치는 “투수가 연투를 하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게다가 한 달 먼저 시즌을 시작하는 셈이라 몸 상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내가 (김인식) 감독님께 투수들의 몸 상태를 보고할 때 잘해야 한다. 이번 대회는 선발투수가 긴 이닝을 던지는 것이 힘든 만큼 교체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소속팀 훈련과 똑같이 생각하라”

선 코치는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둔 국제대회에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2006년 WBC(준결승 진출)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금메달), 2015년 프리미어12(우승) 대표팀 코치를 맡아 선수들을 도왔다. 풍부한 경력만큼이나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남다르다. 이번에는 선수들에게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소속팀의 전지훈련과 똑같이 생각하고 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내 경험상 대표팀에선 선수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편이라 힘든 훈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대회 직후 정규 시즌에 성적이 떨어지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선수들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2면 인천국제공항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월 초 K리그 개막 이전까지 신임 총재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권오갑 총재(맨 앞)가 1월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연맹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는 모습. 스포츠동아DB

프로축구연맹 총재 2월내 재선거 수천만원 기탁금…후보자 나올까?

3일 이사회서 액수 결정…후보자 없을땐 추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권오갑 임시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개정된 정관의 세부 규정을 확정하는 대로 재선거를 공고하고 새 수장을 뽑는 절차에 착수한다.

연맹 관계자는 31일 “2월 안에 새로운 총재를 선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월 16일 치러진 제11대 총재선거에 단독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반 득표에 실패한 뒤 연맹은 전임 권오갑 총재가 수장을 맡는 ‘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7시즌 K리그 개막이 3월 4일로 다가오면서 그 전에 연맹이 정상체제로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연맹도 새 총재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맹은 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개정된 정관을 뒷받침할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1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연맹은 ‘총재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총회를 통해 적임자를 추대하고, 총재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내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은 이미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 3일 이사회에선 기탁금을 얼마로 할지, 기탁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를 확정한다.

이르면 다음주 초 재선거 일정이 공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적임자’가 입후보할 지로 모아진다. 변화가 있을 순 있지만, 현재 축구계에선 재선거에 뜻을 두고 있다는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천만 원에 달할 기탁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후보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는 점도 변수다. 게다가 지난 선거에 불출마했던 권 총재가 재선거에도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총재를 다시 맡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후보 등록과 선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재선거 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나타나더라도 지난번 신 후보처럼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연맹이 개정된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추대 형식’을 거쳐 새 수장 선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추대 과정을 거친다면 권 총재의 재선출이 유력한 듯하지만, 권 총재가 새로운 인물을 추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권 총재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최해경·김창조 기자

NAVER FM에셋 을 검색하세요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짝짝 채워줍니다.



www.fmasset.co.kr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은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줄줄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FM에셋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